

#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

##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

1,700만 촛불로 박근혜, 이재용 구속 !!  
대통령 얼굴 바꾼다고  
헬 직장, 위험사회가 바로 끝나겠습니까?

일하다 죽고 다치고 골병드는 현장을 바꾸고  
전국이 불안한 위험 사회를 끝장내는 촛불..  
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워 나갑시다.



### 위험업무 외주화로 노동자는 죽고 시민 안전도 흔들

#### 201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95%가 하청 노동자

최근 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상자.  
(2016 국정감사 문진국의원실)

연도	사망자(명)		
	계	원청	하청(비율)
2011	52	6	46(88.4)
2012	53	14	39(73.5)
2013	57	7	50(87.7)
2014	45	4	41(91)
2015	38	2	36(95)
계	245	33	212(86.5)



현대중공업 사망



삼성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현장

- 전국의 철도, 지하철 .. 제2제3의 구의역 참사 넘쳐나, 시민안전 위협
-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사태 감염확산의 원인 병원의 외주화
- 구미불산 누출사고 재난지역 선포, 화학사고로 죽어나가는 하청 노동자
- 지진으로 불안한 원전. 사망 100% 하청 노동자. 방사선 피폭 정규직 10배. 지진경보도 누락
- 발전 5개사 사망 21명 100% 하청 노동자. 한전 하청 노동자 산재 원청의 39배

**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제한하는 중국  
건설업도 원청 직접고용 시공 강제하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  
위험의 외주화 금지.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. 투쟁으로 쟁취 합시다.**

## 숨 방망이 처벌로 반복되는 노동자, 시민의 죽음



- 40명 산재사망 기업 벌금 2,000만원  
하청 산재에 원청은 무혐의 남발  
2015년 산업안전사고 검찰 기소율 5%
- 위험의 외주화로 30대 재벌 산재보험료 할인  
최근 3년 1조 3,796억
- 1명 산재사망 한국은 50만원 VS 영국은 6억9천만원  
미국 현대 자동차 하청 노동자 사망에 벌금 30억
- 메르스 확산 주범 삼성 벌금 800만원.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 발령.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개입
- 가슴기 살균제 참사 전 옥시 대표 무죄
- 세월호 참사 청해진 해운 기업 벌금 1,000만원. 구조책임은 해경 경정으로 끝?
- 캐나다, 호주, 영국에는 기업 살인법 제정

■ 민주노총은 시민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. 2008년 <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> 2009년 <청소 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>, 2010년부터 계속된 <감정노동자에게 진짜 웃음을> .. 그리고, 2016년 불법 파견 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, 구의역 참사 시민 대책위 투쟁을 이어 나갔습니다.

■ 현대중공업, 유성기업, 한국타이어, 현대건설등 전국에서 진행한 민주노총의 산재은폐 투쟁으로 산재은폐 처벌강화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.

□ 산재신청 노동자 불이익 금지 : 산재보험법 개정 (2016년 12월 개정)

산재신청 노동자 해고, 불이익 주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고의적 산재은폐 형사 처벌 :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(2017년 3월 국회 통과)

고의적 산재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사업주 산재 미보고, 허위 보고 - 1,500만원 과태료. 중대재해는 3,000만원 과태료

## 하루에 7명. 매년 2,400명이 죽는 산재사망

세월호 참사, 메르스, 가슴기 살균제 참사, 지진, 화학사고, 원전 위험의 외주화 금지.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시민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

**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  
민주노총이 앞장서 투쟁으로 쟁취 합시다**